

運氣의 勝復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A Study on Overabundant Qi And Retaliating Qi Of Five Circuits And Six Qi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climate changes in the natural realm displays phenomena of excess and deficiency due to the principle of Yiyinyangzhiweidao. Here, overabundant qi arises due to the works of multiplication and insulation. When this overabundant qi is in force, the retaliating qi appears without fail to create a parallel. This is the Autonomous Equilibrium Mechanism found in the natural world. Studying this mechanism is deeply significant in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diseases.

Methods : The paper is written by reviewing the texts found in Huangdineijing's Chapters of Yunqi, which are Qijiaobiandalun, Wuchangzhengdalun, Liuyuanzhengjidalun, Zhizhenyaodalun, and Suwenliuqixuanzhumiyu.

Results & Conclusions : The overabundance and retaliation in Five Circuits take the form of the restrained child of the Five Circuits takes revenge on the overabundant qi on behalf of his mother. The overabundance and retaliation in Six Qi take the form of rapid healing of Benqi which was in stagnation. Traditionally, overabundant qi is the only one in existence when the Five Circuits are in excess and the year of Hai yin wu wei you xu's regular transformation. During this time, retaliating qi does not exist. When Five Circuits are in deficiency and in the year of Si shen zi chou mao chen's pattern transformation, both the overabundant and deficiency qis exist. However, regardless of regular transformation or pattern transformation, overabundant qi and retaliating qi cannot exist at the same time. This seems to be the rational conclusion. There are some regulations that overabundance and retaliation follow. First, the strong and weak, and number of days coincide. Second, overabundance qi appear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period when the qi of controlling heaven is in place. During the later half of the period when the qi of terrestrial effect is in force, retaliation qi is the one that appears. Third, overabundance and retaliation does not end with one time. Rather, they will continue to repeat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without any set pattern. Fourth, the overabundance and retaliation of the guest qi and dominant qi only has overabundance and no retaliation.

Key words : Overabundant Qi(勝氣), Retaliating Qi(復氣), Original Change(正化), Opposite Change(對化), Autonomous Equilibrium Mechanism(自律平衡機轉)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042-280-2601, E-mail : yooney@dju.ac.kr

Received(January 23, 2018), Revised(January 31, 2018), Accepted(January 31,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緒 論

천지만물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운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盛衰의 변화가 동반하고 있다. 『周易繫辭傳』에서 “吉凶悔吝者는 生乎動者也라”¹⁾라 하였고 『素問六微旨大論』에서 “成 속에 敗의 요인이 의지하고 잠복해 있으며 敗 속에 成의 요인이 의지하고 잠복해 있는 것은 六氣의 운동으로 말미암으니 움직이는 것이 그치지 않음에 변화(또는 災變)가 발생한다(成敗倚伏이 生乎動하니 動而不已에 則變作矣라)”²⁾고 하였다. 또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陰陽之氣는 多少의 不同함이 있고 형체가 있는 물질은 발전과정에서 旺盛하고 衰老하는 구별이 있고 위에 있는 氣와 아래에 있는 形質은 서로 感應하여 부름에 사물의 太過와 不及의 形象이 드러나게 된다.(氣有多少하고 形有盛衰하며 上下相召에 而損益彰矣라)”³⁾라 하였으며 이를 이어서 더욱 구체적으로 “形有盛衰는 天干이 주관하는 五運에 각각 太過와 不及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작할 때 太過한 것이 지나가면 不及한 것이 이어서 오고 不及한 것이 지나가면 太過한 것이 이어서 온다.(形有盛衰는 謂五行之治가 各有太過不及也라 故로 其始也에 有餘而往하면 不足隨之하고 不足而往하면 有餘從之라)”⁴⁾ 하였다. 이는 주역에서 말하는 ‘一陰一陽之謂道’와 相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계는 太過와 不及의 異常情況이 필연적으로 出現하게 되며 太過와 不及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五行사이의 정상적인 相生, 相克의 관계가 破壞되면서 相乘과 相侮의 異常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오운육기의 변화는 제때에 이르는 것이 있고 때에 앞서서 이르는 것이 있고 때보다 늦게 이르는 다른 상황이 있다. 제때에 이르는 것은 平氣가 되니 氣化之常으로 勝復의 현상이 없다. 기후가 이르는

것이 먼저 오거나 늦게 오는 것은 반드시 太過와 不及에 의한 것이니 勝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時令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기후가 먼저 이르는 것을 太過라고 하니 太過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던 것을 침범하여 꺾박하고 내가 이기는 것은 相乘한다. ……時令이 왔는데도 기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不及이라고 하니 不及하면 내가 이기던 것이 制約을 받지 않아 妄行하고 나를 生하는 것이 병이 들며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나를 꺾박한다.(未至而至를 此謂太過니 則薄所不勝而乘所勝也라…至而不至를 此謂不及이니 則所勝妄行而所生受病하고 所不勝이 薄之也라)”⁵⁾ 하였고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氣가 太過하면 자기가 이기는 것을 克制하고 자기가 이기지 못하던 것을 相侮하며 氣가 不及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던 것이 나를 업신여겨 相乘하고 내가 이기던 것도 나를 가볍게 여겨 相侮한다. 나를 相侮하면 도리어 邪氣를 받으니 相侮했다가 邪氣를 받는 것은 두려워함이 적었기 때문이다.(氣有餘則制己所勝而侮所不勝하고 其不及則己所不勝이 侮而乘之하고 己所勝도 輕而侮之라 侮反受邪하나니 侮而受邪는 寡于畏也일세라)”⁶⁾라고 하였다. 자신의 기운이 強할 때 弱할 것을 兼并하고 자신의 기운이 弱할 때 強한 것을 畏服하는 것은 事物의 자연적인 원리이며 원칙이다.

勝復이라는 말은 하나의 五行之氣가 偏盛하여 상대방을 克할 때 克을 당하는 一行의 子氣가 復氣로 작용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復은 報復 또는 回復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러한 復氣가 作用하는가. 『素問氣交變大論』에서 “五運之氣의 변화규율은 저울추와 저울대의 관계처럼 평형을 유지하니 높은 것은 억제하고 낮은 것은 들어 올려주고 氣化가 정상적인 것은 뒤에 오는 氣도 정상적인 時令에 應하고 氣化가 비정상적인 것은 뒤에 오는 氣가 반드시 復氣로써 보복하니 이것은 만물이 生長化收藏하는 자연적인 규율이며 사시기후변화의 정상적인 질서이다. 정상적인 질서를 잃으면 천지만물이 사방

1) 成百曉 譯註. 현도완역周易傳義(下). 서울. 전통문화연구원. 2012. p.568.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44.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33.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33.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6.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38.

이 막혀 不通하게 된다.(夫五運之政은 猶權衡也니 高者를 抑之하고 下者를 舉之하며 化者를 應之하고 變者를 復之하나니 此生長化收藏之理며 氣之常也라. 失常則天地四塞矣라)”⁷⁾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저울로 물건을 달 때 平衡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연계에서 五運의 運行은 태과할 때는 抑制하는 運이 작용하고 不及할 때는 增強시키는 運이 작용하여 相互制約과 相互補助를 통해 자연계의 기후가 相對平衡을 지향하고 自動調節機能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만일 이러한 生長化收藏의 道理와 사시기후변화의 規律이 깨지게 되면 天地之氣가 不升不降하여 자연계의 모든 생명현상은 閉塞不通하게 되는 것이다. 勝復은 자연계 기후변화의 자율평형기전으로 이에 대한 이해는 자연계의 변화규율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인체의 生理病理 및 질병발생의 기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한편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본 논문은 『素問』 運氣篇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素問六氣玄珠密語』의 내용을 참고하여 勝復의 機轉과 五運의 勝復, 六氣의 勝復, 勝復의 規律, 勝復의 醫學의 活用 등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勝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였다.

2. 오운과 육기의 勝復機轉

일반적으로 五運의 復氣는 子氣가 母仇(어머니의 원수)에 복수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六氣의 復氣는 울체되었던 本氣가 復發(회복하여 발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오운의 승복에 子氣가 母仇에 복수하는 기전을 太過之氣가 勝氣로 作用하는 경우와 不及之氣에 의해 勝氣가 作用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木氣가 태과하여 勝氣가 되어 木克土를 하면 土氣가 衰弱하여 水를 克制하지 못한다. 水가 克制를 받지 않아 왕성하게 되면 水克火를 하여 火가 偏衰하게 되고 火가 偏衰하게 되어 火克金을

하지 못하면 金이 왕성하게 되어 金克木을 하게 되니 이때 작용하는 金氣를 復氣라 한다. 復氣는 반드시 勝氣에 의해 克을 당하는 一行의 子가 되니 결과를 보면 子氣가 어머니의 원수(母仇)에 보복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위에서는 木克土를 당한 土의 자식인 金氣가 복기가 된다.

만약 木氣가 不及하여 金克木을 당하면 金이 勝氣가 된다. 木이 金의 克을 당하면 木克土를 하지 못하여 土氣가 旺盛하게 되고 土氣가 旺盛하면 土克水를 하여 水가 衰弱하게 된다. 水가 衰弱하게 되면 水克火를 하지 못하여 火가 旺盛하게 되고 왕성한 火氣가 火克金을 하게 되어 火氣가 復氣로 作用하게 된다. 火는 처음 克을 당한 木氣의 자식임으로 역시 子氣가 母仇에 복수하는 기전으로 귀결이 된다.

이와 같이 자연계는 하나의 기운이 왕성하게 勝氣로 작용하게 되면 자율적인 기전에 의해 그 승기를 제압하는 기운이 出現하여 復氣로 작용하여 平衡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자연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自律의 平衡機轉이다. 그리고 復氣는 반드시 被克者의 자식이 됨으로 克을 당한 어머니를 위해 복수를 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四行의 太過와 不及 時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으로 나머지 설명은 생략한다.

六氣의 勝復에 대하여 張志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육기의 승복을 살펴보면 오운과 같지 않으니 오운이 불급한 해에 승기가 있으면 子氣가 어머니를 위해서 복수를 하지만 육기의 승복은 태과불급의 구분이 없고 승기가 있으면 복기가 있고, 승기가 없으면 복기가 없으며, 승기가 심하면 복기가 심하고, 승기가 미약하면 복기가 미약하다. 복기는 울체되었던 本氣가 復發(회복)하는 것이지 자식이 어머니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蠲蟲지복, 소음지복이라고 말했으니 『素問氣交變大論』장에서 복기를 논한 것과는 같지 않다.(按六氣之勝復건대 與五運不同하니 五運不及之歲에 有勝氣而子氣爲母復仇나 六氣之勝復은 無分太過不及하고 有勝則有復하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46.

고 無勝則無復하며 勝甚則復甚하고 勝微則復微라. 而所復之氣는 卽是所鬱之本氣復發이오 非子復母仇也라. 故로 曰厥陰之復 少陰之復이니 與 『素問氣交變大論』 章之論復으로 不同也라.”⁸⁾

위의 내용은 『素問至眞要大論』의 六氣之復에 대한 설명이다. 六氣之復에서는 다른 설명이 없이 三陰三陽의 復氣만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장지충은 위와 같이 주석을 단 것이다.

六氣의 勝復은 亢害承制論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亢害承制論은 『素問六微旨大論』에서 “相火之下에 水氣承之하고 水位之下에 土氣承之하고 土位之下에 風氣承之하고 風位之下에 金氣承之하고 金位之下에 火氣承之하고 君火之下에 陰精承之라”⁹⁾ 하였다. 위의 내용은 相火, 水位, 土位, 風位, 金位, 君火의 아래에 위의 기운을 克制하는 水氣, 土氣, 風氣, 金氣, 火氣, 陰精이 잠복하여 견제를 하고 있다가 위의 六氣가 勝氣로 작용하여 만물을 해치게 되면 (亢則害) 下承之氣가 나타나서 勝氣를 제압(承乃制)한다는 것이니 이때 下承之氣는 復氣로 作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연계에는 勝氣가 작용할 때 復氣가 작용하여 자율적으로 平衡을 유지하는 조절기능이 있지만 오운과 육기에서의 작용하는 기전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장개빈은 六氣에서도 “태과하면 下承之氣가 일어나 제압하고 불급하면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복수한다(太過則承者가 起而制하고 不及則子爲母而復之라)”¹⁰⁾고 하였다. 자연계의 변화는 오운이 주가 되거나 육기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운과 기는 일체가 되어 작용함으로 관찰자가 상황에 맞게 이론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3. 五運의 勝復

甲丙戊庚壬의 5陽年에는 太過之氣가 작용하고 乙

丁己辛癸의 5陰年에는 不及之氣가 작용한다. 오운의 勝復에 대해 五運太過와 五運不及 및 主運의 勝復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五運太過

먼저 『素問氣交變大論』에 있는 歲木太過, 歲火太過, 歲土太過, 歲金太過, 歲水太過의 5種 중에서 歲木太過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고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木運이 태과한 해에는 풍기가 유행하여 비토가 사기를 받는다.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병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손실, 식욕감퇴, 신체침중, 煩悶과 抑鬱, 장명, 腹部支撐, 창만 등의 병이다. 위에서는 목성이 빛난다. 만약 목기가 아주 심하면 간기가 過強하여 갑자기 잘 怒하고 頭眩, 目暈 등의 머리의 질병이 생긴다. 비토의 化氣가 작용하지 못하고 肝木의 生氣만이 홀로 작용한다. 허공에는 구름이 날아 움직이고 초목이 편안하지 못하며 심하면 가지와 잎사귀가 흔들려서 떨어진다. 도리어 협통하고 구토가 심해지며 즉양명위경의 原穴인 충양맥이 끊어진 자는 脾氣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다. 위에서 금성인 태백성이 빛을 발한다. (歲木太過하면 風氣流行하여 脾土受邪라. 民病은 飧泄하며 食減體重하며 煩冤腸鳴하며 腹支滿하니 上應歲星이라. 甚則忽忽善怒하며 眩冒巖疾이라. 化氣不政하여 生氣獨治하면 雲物飛動하고 草木不寧하며 甚而搖落이라. 反脇痛而吐甚하고 衝陽絶者는 死不治니 上應太白星이라.)¹¹⁾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木運이 태과하면 木氣인 風氣가 왕성하여 流行을 하고 所不勝인 脾土는 辱을 당해 肝實脾虛와 관련된 病症이 발생한다. 그리고 언뜻 살펴보면 復氣의 내용이 없는 듯하다.

그리고 실지로 『素問氣交變大論』의 歲木부터 歲水까지 五太過의 내용에는 復氣라는 말이 한글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太過之年에는

8)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p.611.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241-242.
 10)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133.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48.

‘有勝而無復’이라 하였다. 邢玉瑞도 “태과한 해에는 歲運의 氣가 왕성하니 勝氣가 되어 所不勝하는 것까지도 克制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勝氣는 本氣가 有餘하여 勝하니 즉 마땅히 勝할 것이 勝하기 때문에 復氣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¹²⁾라고 하였다.

그리고 『六元正紀大論』의 六十年 運氣之紀에서도 不及之歲에만 勝復을 말하고 太過之年에는 勝復을 언급하지 않아 陽年太過에는 勝氣만 있고 復氣는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 장개빈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오상정대론』에서 발생지기(목태과)에 그 덕을 힘 쓰지 않으면 收氣(金氣)가 보복한다고 하였고, 혁희지기(화태과)에 그 정사를 포악하고 강렬하게 하면 藏氣(水氣)가 보복한다고 하였고, 돈부지기(토태과)에 大風이 신속하게 이르면 사기가 脾를 손상시킨다고 하였고, 견성지기(금태과)에 정사가 갑자기 변하면 長氣(火氣)가 이에 와서 구원한다고 하였고, 유연지기(수태과)에 정사가 지나치면 化氣(土氣)가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태과한 해로써 말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陽年에도 復氣가 없는 것이 아니다(五常政大論에 云 發生之紀에 不務其德則收氣復하고 赫曦之紀에 暴烈其政하면 藏氣酒復하고 敦阜之紀에 大風迅至하면 邪傷脾也요 堅成之紀에 政暴變하면 長氣斯救하고 流衍之紀에 政過 則 化氣大舉라하니 是皆以太過之歲爲言이라 由此觀之 則陽年에도 未嘗無復也라)¹³⁾

태과지년은 歲運之氣가 마땅히 勝할 것이 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방자하게 위세를 떨치거나 남에게 刑罰을 행하지 않아 勝하되 常수를 잃지 않는다면 所勝之氣와 同化하게 된다. 즉 木과 金이 同化하고 火와 水가 同化하는 것 등등이다. 만약 勝하여 그 德을 행하지 않고 방자하게 위세와 형벌을 떨치면 復氣가 와서 보복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素問五常政大論』에서 말한 “오운이 정상적인 공덕

을 행하지 않고 강함을 믿고 所不勝之氣를 相侮하면 반드시 나를 이기는 氣가 오서 보복을 하지만 만약 정상적인 규율에 따라 공덕을 행한다면 나를 이기는 氣가 또한 나와 함께 同化한다.(不恒其德이면 則所勝來復하고 政恒其理하면 則所勝同化라)”¹⁴⁾이다. 歲木太過에서 비록 復氣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태백성이 위에서 응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金이 復氣로 작용하여 금성인 태백성이 빛을 발하는 것이니 복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2) 五運不及

『素問氣交變大論』에서는 五運不及의 모든 해에서 다음과 같이 復氣의 작용을 서술하고 있다.

歲木不及하면 燥灑大行하야 生氣失應하야 草木晚榮하고 肅殺而甚 則剛木辟者하고 柔萎蒼乾이라…… “復則”炎暑流火하야 濕性燥하고 柔脆草木이 焦槁라가 下體再生하야 華實齊化라.

歲火不及하면 寒乃大行하야 長政不用하야 物榮而下하고 凝慘而甚 則陽氣不化하야 乃折榮美라…… “復則”埃鬱하고 大雨且至하야 黑氣酒辱이라.

歲土不及하면 風灑大行하야 化氣不令하고 草木茂榮하나 飄揚而甚하야 秀而不實이라…… “復則”收政嚴峻하야 名木蒼凋라.

歲金不及하면 炎火酒行하고 生氣酒用하며 長氣專勝하야 庶物以茂하고 燥燥以行이라…… “復則”寒雨暴至하야 灑零冰雹하며 霜雪殺物이라.

歲水不及하면 濕灑大行하고 長氣反用하야 其化酒速하고 暑雨數至라…… “復則”大風暴發하야 草偃木零하야 生長不鮮이라.¹⁵⁾

歲運이 不及한 해에는 本氣가 虛衰하니 自然界에

12) 邢玉瑞. 運氣學說的研究與評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p.169.

13)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128.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5.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245-246.

는相應하는 物化의 현상이 나타나고 인체에서도 서로 對應하는 內臟之氣가 不足한 病이 나타난다. 또 本氣가 허약한 틈을 타서 내가 所不勝하는 氣가 流行하며 내가 所勝하는 氣도 나를 反克(相侮)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나의 子氣가 亢盛하여 復氣로써 작용한다. 위에 열거한 歲木不及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歲木이 不及한 6丁年에는 金克木하여 金의 燥氣가 大行하고 木의 生氣는 時令과 상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木의 子인 火氣가 復氣로 작용하게 되면 炎暑火熱之氣가 流行하여 濕氣가 熱氣를 받아 건조하게 되고 부드럽고 脆弱한 초목의 枝葉이 타고 마르다가 뿌리에서 다시 싹이 돌아 꽃이 피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보면 木運이 不及할 때 金이 強함을 믿고 木을 能멸하면 木之子인 火가 반드시 와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金에게 복수를 한다. 金이 火의 克制를 받게 되면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오운 불급지년에 所不勝之氣가 孤危不足한 때를 틈타서 침범을 하는 것은 마치 부르지도 않은 손님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오는 것과 같으니 만약 포박하여 덕을 베풀지 않으면 歲運의 子氣가 반드시 와서 보복을 하여 재앙이 닥치게 된다. 승기가 미약하면 복기도 미약하고 승기가 심하면 복기도 심한 것이 승복변화의 정상적인 규율이다.(乘危而行하여 不速而至니 暴虐無德하면 災反及之라. 微者是 復微하고 甚者是 復甚하니 氣之常也라)”¹⁶⁾라고 하였다.

장개빈은 陰年과 陽年의 勝復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오직 陰年은 氣가 약하여 상대방이 와서 나를 勝하기 때문에 자식이 반드시 일어나 보복을 한다. 따라서 復이라 이르니 陽年은 氣가 강하여 나를 勝하는 것이 없다. 단지 내가 상대방을 勝하기 때문에 承하는 것이 쫓아나와서 克制를 한다. 그러나 承이

라 하고 復이라 하는 것은 본래 하나의 이치니 다만 서로 계승하여 克制하는 것을 承이라 하고 勝하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을 復이라고 이른다. 勝氣와 復氣는 서로 계승하여 본래 틈이 없기 때문에 내경에서 “승기가 있으면 복기가 있고 승기가 없으면 복기가 없다고 하였고 勝氣가 이르면 복기가 작용하여 일정한 원칙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승기가 미약하면 복기가 미약하고 승기가 심하면 복기가 심하다”고 하였다.(惟是陰年氣弱하면 彼來勝我故로 子必起而報之라 故로 謂之復이요 陽年氣強하여 無勝我者라 但以我勝彼 故로 承迺從而制之라 然이나 曰承曰復은 本一理也니 但相繼而制者를 謂之承이요 因勝而報者를 謂之復이니 勝復相仍하여 本無罅隙 故로 經에 曰有勝則復하고 無勝則否하며 勝至則復하여 無常數也라하고 又曰微者是 復微하고 甚者는 復甚이라 하니라)¹⁷⁾

장개빈은 전통적으로 “陽년에는 勝氣만 있고 復氣가 없으며(有勝無復) 陰년에는 勝氣가 있으면 반드시 復氣가 있다(有勝必有復)”는 의견을 부정하고 陽年, 陰年을 막론하고 勝氣가 있으면 復氣가 있고 勝氣가 없으면 復氣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매우 합리적인 견해라고 사료된다.

3) 主運의 勝復

『素問氣交變大論』에서는 歲運太過와 歲運不及의 기후와 병변의 특징을 기술한 다음에 또 歲運과 主運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一年의 전체적인 기후의 특징은 歲運의 太過, 不及과 직접 관계가 있고 主運과 客運사이의 制勝도 밀접한 연계가 있다. 관련된 내용을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木不及이나 春有鳴條律暢之化하면 則秋有霧露清涼之政이어나와 春有慘淒殘賊之勝하면 則夏有炎暑燔燼之復하니 其胥東이요 其藏肝이며 其病이 內舍於脇하고 外在關節이라.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4.

17)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128.

火不及이나 夏有炳明光顯之化하면 則冬有嚴肅霜寒之政이어니와 夏有慘淒凝冽之勝하면 則不時有埃昏大雨之復하니 其眚南이요 其藏心이며 其病이 內舍膺脇하고 外在經絡이라.

土不及이나 四維有埃雲潤澤之化하면 則春有鳴條鼓拆之政이어니와 四維發振拉飄騰之變하면 則秋有肅殺霖霽之復하니 其眚四維요 其藏脾며 其病이 內舍心腹하고 外在肌肉四支라.

金不及이나 夏有光顯鬱蒸之令하면 則冬有嚴凝整肅之應이어니와 夏有炎燠燔燎之變하면 則秋有水雹霜雪之復하니 其眚西요 其藏肺며 其病이 內舍膺脇肩背하고 外在皮毛라.

水不及이나 四維有湍潤埃雲之化하면 則不時有和風生發之應이어니와 四維發埃昏驟注之變하면 則不時有飄蕩振拉之復하니 其眚北이요 其藏腎이며 其病이 內舍腰脊骨髓하고 外在谿谷踠膝이라.¹⁸⁾

위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勝氣가 없으면 復氣가 없다.

비록 歲運에 태과와 불급이 있다하더라도 節令에서 승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기가 발생하지 않아 一年동안 정상적인 기후와 物化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木運不及年일 때 봄에 木運이 用事할 때 金克木을 당하지 않아 木氣不及의 기후 특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봄에 和風이 불고 초목도 제때에 싹이 트고 가지를 뻗어 기후와 物化가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가을의 기후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말한 “木不及이나 春有鳴條律暢之化하면 則秋有霧露清涼之政이라”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즉 木不及이나 봄에 金克木을 당하지 않으면 가을에 火克金을 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승기가 있으면 반드시 복기가 있다.

만약 歲運에 태과와 불급이 있다면 기후도 相應

하는 승기가 작용하여 相應하는 계절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반드시 상응하는 복기가 출현한다. 예를 들어 木運不及之年에 봄에 木運이 用事할 때 木運이 不及하면 克인 金氣가 왕성하게 작용하여 봄에 도리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어 만물을 해치는 가을의 기후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火는 木의 자식으로 木氣가 능멸을 당하면 子氣가 와서 복수하기 때문에 火氣가 用事하는 여름에 특별히 炎熱이 행해진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木不及이나 春有鳴條律暢之化하면 則秋有霧露清涼之政이어니와 春有慘淒殘賊之勝이면 則夏有炎暑燔燎之復이라”이다. 복기는 승기를 따라 발생하니 승기가 있으면 반드시 복기가 있다.

여기에서 復氣發生의 規律도 살펴볼 수 있다.

六氣의 승복은 『素問六元正紀大論』과 『素問至真要大論』에 상세히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勝氣는 前半年에 발생하고 復氣는 後半年에 발생하여 前半年에 勝氣가 있으면 後半年에 반드시 復氣가 있게 된다.

위의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五運의 승복은 上半年, 下半年을 나누지 않는다. 木運이 不及할 때 金氣가 勝氣로 작용하면 木의 자식인 火가 여름에 곧바로 復氣로 작용한다. 이러한 법칙을 통해 우리는 不及年일 때 勝復의 변화는 언제나 승기를 이어서 바로 복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木不及할 때 봄에 金이 勝氣로 작용하면 바로 이어 여름에 火가 복기로 작용하고 火不及일 때 여름에 水가 승기로 작용하면 長夏를 위시한 四季에 土가 복기로 작용하고 土不及일 때 四季(음력 3, 6, 9, 12월)에 木이 승기로 작용하면 가을에 金이 복기로 작용하는 것 등등이다.

太過之年은 이와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木運이 태과하면 木氣가 勝氣가 되어 봄에 왕성하게 작용하나 金氣가 復氣가 됨으로 승기를 바로 이어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셋째 歲運이 불급해서 승복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災變의 發生은 一定한 方位나 계절이 있고 인체에서도 상응하는 臟氣에 병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木運이 불급할 때 자연의 災變은 동방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46.

에서 발생하고 인체의 병은 肝에 있다. 火運이 불급할 때 자연의 災變은 남방에서 발생하고 인체의 병은 心에 있다. 金運이 불급할 때 자연의 災變은 서방에서 발생하고 인체의 병은 肺에 있다. 水運이 불급할 때 자연의 災變은 북방에서 발생하고 인체의 병은 腎에 있다.

4. 六氣의 勝復

1) 六氣의 淫勝, 反勝, 相勝과 復氣

오운의 平氣는 常化가 되고 태과불급 및 勝復, 鬱發은 變化가 된다. 육기에도 常變이 있어 天地의 六位之化가 각각 그 常道를 지키고 각각 그 자리에 해당되는 정령을 행하면 육기가 정상적인 변화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變化가 발생한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육기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淫勝, 反勝, 相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淫勝은 司天之氣, 在泉之氣가 지나치게 盛하여 邪氣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至眞要大論」에서 ‘內淫而病’이라 하였고 장개빈은 “淫은 邪勝也니 不務其德을 是謂之淫이라 內淫者는 自外而入하여 氣淫於內라”¹⁹⁾하였다.

‘內淫而勝’하면 자신이 勝하는 氣를 相乘한다. 예를 들어 厥陰이 司天하거나 혹 在泉하여 風淫이 所勝하면 濕土之氣가 邪를 받아 氣化는 本位인 風木之氣가 지나치게 왕성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濕土之氣가 不足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司天在泉之氣의 淫勝에 대해 王琦²⁰⁾, 邢玉瑞²¹⁾ 등은 ‘有勝而無復’이라고 하였으나 勝이 있으면 復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으로 참고는 할 뿐 여기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反勝에 대해 장개빈은 “反勝者는 以天地氣가 有

不足 則間氣가 乘虛爲邪하여 而反勝之也라”²²⁾ 하였고 王水은 “不能淫勝於他氣하여 反爲不勝之氣가 爲邪必勝之라”²³⁾고 하였다. 이것은 左右間氣가 司天在泉의 虛함을 틈타서 克勝하는 것이다. 司天在泉之氣는 主가 되고 左右間氣는 從이 되는데 從이 主를 勝함으로 反勝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至眞要大論」에 있는 邪氣反勝의 類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化於天에 清反勝之하고 熱化於天에 寒反勝之하고 濕化於天에 熱反勝之하고 火化於天에 寒反勝之하고 燥化於天에 熱反勝之하고 寒化於天에 熱反勝之라.

風司於地에 清反勝之하고 熱司於地에 寒反勝之하고 濕司於地에 熱反勝之하고 火司於地에 寒反勝之하고 燥司於地에 熱反勝之하고 寒司於地에 熱反勝之라.²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反勝은 결코 오행의 상극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濕化於天에 熱反勝之하고 寒化於天에 熱反勝之’라고 하였는데 熱과 濕, 熱과 寒은 단지 陰陽相反일 뿐이지 五行相克은 아니다.

相勝에 대해 장개빈은 “相勝者는 六氣互有強弱하여 而乘虛相勝也라”²⁵⁾ 하였다. 相勝은 左右間氣의 이상으로 서로 虛함을 틈타서 침범하여 勝하는 관계를 이룬 것이다. 예를 들어 左右間氣인 厥陰이 太陰之虛를 相乘하여 克勝을 하고 左右間氣인 太陽이 少陰之虛를 相乘하여 克勝하는 것 등이다.

육기의 反勝과 相勝은 모두 승기와 복기가 있다. 勝氣가 허약한 것을 制勝할 때 勝하는 것이 終極에 이르면 억눌림을 당하던 것이 회복하여 일어나게 된

19)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116.
 20) 王琦,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智識出版社, 1989, p.141.
 21) 邢玉瑞, 運氣學說的研究與評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p.171.

22)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123.
 2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071.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296-297.
 25)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125.

다. 육기의 反勝, 相勝은 모두 정해진 규율이 없다. 勝復의 有無는 미리 알 수가 없고 단지 虛弱함을 틈타 승기가 이르고 승기를 따라 복기가 작용하니 허함이 없으면 승기가 작용하지 않고 승기가 없으면 복기도 없다.

2) 六氣之復

『素問至真要大論』에는 三陰三陽의 六氣之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厥陰之復, 少陰之復이라고만 하여 「氣交變大論」에서 復氣를論한 것과 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五運之復과 六氣之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張志聰은 이에 대해 “復者는 謂三陰三陽之氣가 受所勝之氣勝制하여 鬱極而復發也라”²⁶⁾고 하였다. 즉 육기의 復氣는 자식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復氣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氣의 克制를 받아 本氣가 울체되었다가 本氣가 회복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素問至真要大論』에 있는 六氣之復은 내용이 복잡한데 『白話通解黃帝內經』에서는 이를 일목요연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厥陰之復의 物候 및 發病²⁷⁾

Table 1. The natural world change and an attack of a disease by Jueyin's Retaliating Qi

厥陰之復	風氣復發	偃木飛沙
	木可制土	保蟲不榮
	肝邪實	少腹堅滿, 裏急暴痛
	肝邪乘胃	厥心痛, 嘔吐
	肝邪乘脾	飲食不入, 入而復出
	肝風主動	顛掉眩暈

(2) 少陰之復의 物候 및 發病²⁷⁾

Table 2. The natural world change and an attack of a disease by Shaoyin's Retaliating Qi

少陰之復	熱氣復發	熱氣大行, 流水不冰
	火勝制金	介蟲不復
	心火熾盛	燠熱內作, 煩躁, 心痛, 鬱冒不知人, 譫妄
	火盛刑金	欬, 皮膚痛, 洒淅惡寒, 鼻淵
	母病及子	浮腫, 噦噫, 分注
	裏熱熾盛	痲, 疹, 瘡, 瘍, 癰, 疽, 痊, 痔

(3) 太陰之復의 物候 및 發病²⁷⁾

Table 3. The natural world change and an attack of a disease by Taiyin's Retaliating Qi

太陰之復	濕氣復發	濕變乃舉, 大雨時行
	土勝制水	鱗見於陸
	濕氣內盛	體重中滿, 飲食不化, 飲發於中, 嘔吐
	脾運失健	甚則入腎, 竅瀉無度
	母病及子	胸中不便, 欬喘有聲
	肺失宣肅	掉蹇尤甚, 頭頂痛重
	土勝侮木	

(4) 少陽之復의 物候 및 發病²⁷⁾

Table 4. The natural world change and an attack of a disease by Shaoyang's Retaliating Qi

少陽之復	火氣來復	大熱將至, 枯燥燔蒸
	火勝乘金	介蟲乃耗
	火熱內盛	心熱煩燥, 便數, 憎風
	心火熾盛	口糜, 血溢, 血泄
	子病及母	目乃瞶蹇
	肝風內動	甚則入肺, 欬而血泄
	火勝乘金	引發瘡疾

26)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p.611.

27) 張登本主編, 白話通解黃帝內經, 西安, 世界圖書出版西安公司, 2000. pp2099~2101.

	寒極反熱, 噎絡焦槁, 渴引水漿, 色變黃赤
--	---------------------------

(5) 陽明之復의 物候 및 發病²⁷⁾

Table 5. The natural world change and an attack of a disease by Yangming's Retaliating Qi

陽明之復	燥涼之氣來復	清氣大舉
	金勝制木	森木蒼乾, 毛蟲乃厲
	邪犯肝木	病生肢脇, 氣歸於左
	肝失疏泄	善太息, 頭痛,
	氣機鬱滯 子病及母	甚則入肝, 驚駭, 筋攣
	邪犯脾胃	腹脹而泄, 嘔苦, 噦
	肺失宣降	欬
	金勝侮火	心痛

(6) 太陽之復의 物候 및 發病²⁷⁾

Table 6. The natural world change and an attack of a disease by Taiyang's Retaliating Qi

太陽之復	寒氣來復	厥氣上行, 水凝雨冰, 地裂冰堅
	水勝制火	陽光不治, 羽蟲乃死
	陰寒內盛	腰脛反痛, 屈伸不便
	腎陽受損	胸腹痞滿, 食減,
	水勝侮土	噦噫, 唾出清水
	脾胃受病	甚則入心, 善忘,
	水勝乘火	善悲, 心痛
	心反受病 母病及子	少腹控攣, 引腰脊,
寒犯肝脉	上衝於心	

六氣之復은 本氣가 울체되었다가 本氣가 회복하여 왕성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후와 병증이 나타난다. 厥陰之復을 예로 들어보면 風氣가 復發하여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모래가 날리며 木克土를 하여 土에 속하는 倮蟲이 잘 자라지 못하고 肝邪가 實하여 小腹堅滿하고 裏急暴病하며 肝邪가 胃를 犯하여 厥心痛하고 嘔吐하며 肝邪

가 脾를 犯하여 飲食不入하거나 음식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며 肝風은 움직이는 것을 주장하여 몸이 한곳이 떨리거나 어지러운 顛掉眩暈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하의 설명은 생략한다.

3) 素問六氣玄珠密語의 正化對化와 勝復

『素問六氣玄珠密語』의 「天元定化紀篇第四」에서 六氣와 十二地支를 배합하고 正化와 對化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厥陰은 巳亥와 배합된다. 厥陰은 木이고 木은 亥水에서 생하기 때문에 亥가 正化가 되고 巳가 對化가 된다.

少陰은 子午와 배합된다. 少陰은 君火이고 君火는 존귀한 자리임으로 南방의 離位가 바른 자리이다. 그래서 午가 正化가 되고 子가 對化가 된다.

태음은 丑未와 배합된다. 태음은 土이고 土는 中宮을 主하고 坤卦에 붙어 있다. 坤은 서북에 자리하니 未의 방위로 未가 正化가 되고 丑이 對化가 된다.

소양은 寅申과 배합된다. 소양은 상화의 자리로 坤화보다 낮다. 火가 寅木에서 생겨남으로 寅이 正化가 되고 申이 對化가 된다.

양명은 卯酉와 배합된다. 양명은 金이고 酉는 서방의 金位에 있으니 酉가 正化가 되고 卯가 對化가 된다.

태양은 辰戌과 배합된다. 태양은 水니 水는 坤에서 회복되고 六戌(戊子, 戊寅, 戊辰, 戊午, 戊申, 戊戌)는 天門이 되니 戌자리이고 六己는(己丑, 己卯, 己巳, 己未, 己酉, 己亥)는 地戶가 되니 辰자리이다. 水는 土로 돌아가 작용하니(水歸土用) 戌이 正化가 되고 辰이 對化가 된다.²⁸⁾

28)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39.

위에서 辰戌이 모두 土이고 相合하여 작용할 때 辰戌太陽寒水가 되어 모두 동일한 조건이지만 戌水는 亥子水와 이웃함으로 戌이 정화가 된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同篇에서 “正化는 本이 되어 만물을 生하니 生數를 쓰고 對化는 標가 되어 만물을 成하니 成數를 쓴다”고 하였고 또한 “正化는 時令 변화의 實을 관장하고 對化는 時令 변화의 虛를 관장한다(正司令化之實하고 對司令化之虛也라)”²⁹⁾고 하였다.

「天運加臨紀篇第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甲子 勝而有復, 甲午 勝而不復, 乙丑 勝而有復, 乙未 勝而不復, 丙寅 勝而不復, 丙申 勝而有復, 丁卯 勝而有復, 丁酉 勝而不復, 戊辰 勝而有復, 戊戌 勝而不復, 己巳 勝而有復, 己亥 勝而不復(이하의 내용은 생략한다)”³⁰⁾이라고 하였다.

즉 亥寅午未酉戌의 正化의 해에는 勝而不復하고 巳申子丑卯辰의 對化의 해에는 勝而有復이라고 한 것이다. 이 이론은 『素問氣交變大論』의 五陽年의 해에는 勝而不復하고 五陰年의 해에는 勝而有復한다는 이론과 결합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王氷이 『素問』 注에서 “凡先有勝하면 後必有復이라”고 하였지만 宋나라 때 新校正에서는 『玄珠密語』의 正化對化說을 인용하여 “正은 司令令之實하고 對는 司令令之虛니 對化는 勝而有復하고 正化는 勝而不復이라”³¹⁾하여 도리어 王氷의 “凡先有勝하면 後必有復”이라는 주석이 그렇지 않은 듯하다고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장개빈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내용은 이치를 통달하지 못한 말들이다. 무릇 승복의 이치는 氣의 성쇠를 따라 나타나니 正化對化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素問』의 諸篇을 고찰해 보건대 원래 이러한 말이 없다. 不及有復太過無復의 설명은 「氣交變大論」에 있으니 그

곳에서 태과지운에는 모두 復氣를 말하지 않았고 오직 不及之年에만 언급하였다. 「六元正紀大論」에 실린 60년 運氣之紀에서도 不及之歲에는 復氣를 언급하고 태과지년에는 복기를 언급하지 않아 陽年太過에는 有勝無復한 것처럼 보인다(皆未達之言也라 夫勝復之道는 隨氣盛衰而見하야 非有正對之分이라 考之本經諸篇건대 原無此言이라 其於不及有復 太過無復之說은 蓋以氣交變大論이니 凡太過之運엔 皆不言復하고 惟不及之年則有之요 六元正紀大論所載六十年運氣之紀에도 亦惟不及之歲言復 而太過之年則無하니 似乎陽年太過엔 有勝無復也라)³²⁾

이어서 장개빈은 「五常政大論」의 五太過年인 發生之氣, 赫曦之紀 등에 모두 復氣가 있음을 예로 들어 陽年太過에도 勝復이 모두 있음을 설명하였고 正化對化는 有復無復과 관련이 없고 승기가 있으면 반드시 복기가 있다고 說破하였다. 『內經』에서 “有勝則復 無勝則否”라 하였으므로 장개빈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4) 勝復의 規律

내경의 운기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기와 복기가 작용하는 強弱과 日數는 동일하다.

『素問氣交變大論』에서 “勝復盛衰는 不能相多也라”³³⁾ 하였고 장개빈은 註에서 “勝微則復微하고 勝甚則復甚故로 不能相多也라”³⁴⁾고 하였다. 이 말은 승기가 旺盛하면 복기도 旺盛하고 승기가 衰弱하면 복기도 衰弱하여 한쪽이 더 많은 경우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한쪽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자연계의 규율이 파괴되어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五常政大論」에서 말한 “微者復微 甚者

29)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輿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40.

30)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輿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p.248-250.

3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077.

32)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127-1128.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0.

34)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985.

復甚”³⁵⁾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 이어서 “往來大小는 不能相過也라”³⁶⁾ 하였다. 장개빈은 “勝復大小는 氣數皆同故로 不能相過也라”³⁷⁾ 하였고 왕빙은 “勝復日數는 多少皆同故로 曰不能相過也라”³⁸⁾ 고 하였다. 왕빙은 승기가 작용하는 日數와 복기가 작용하는 日數가 같다고 주석을 달았고 장개빈은 氣勢와 日數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로 본 듯하다.

또 이어서 “各從其動而復之耳라”³⁹⁾ 하였는데 이 말은 氣가 움직이는 情況에 근거하여 復氣가 생겨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 자연계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自動調節能力에 의해 平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司天之氣가 작용하는 전반기에는 주로 勝氣가 나타나고 在泉之氣가 작용하는 후반기에는 주로 復氣가 나타나지만 고정된 규율은 없다.

『素問至真要大論』에서 “初氣終三氣는 天氣主之하니 勝之常也오 四氣盡終氣는 地氣主之니 復之常也라. 有勝則復하고 無勝則否라”⁴⁰⁾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初之氣부터 三之氣까지는 司天之氣가 주관하며 勝氣가 항상 나타나는 시간대이고 四之氣부터 終之氣까지는 在泉之氣가 주관하며 復氣가 항상 나타나는 시간대이다. 승기가 있으면 복기가 있지만 승기가 없으면 복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너무 엄밀한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앞에서 오운의 복기는 전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至真要大論」에서 “時有常位而氣無必也라”⁴¹⁾하여 四時와 六氣는 一定한 常位

가 있지만 승복지기의 有無는 필연적인 규율이 없다고 말했다는 때문이다.

셋째 승복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再勝則再復하여 고정된 원칙이 없다.

승기와 복기는 한 번씩만 오는 것도 아니다. 同篇에서 “복기가 와서 작용했는데 다시 승기가 오면 (復已而勝) 다시 復氣가 작용하여 고정된 원칙이 없고 氣가 쇠약해져야만 비로소 그친다(勝至則復하여 無常數也니 衰乃止耳라)”고 하여 再勝則再復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복기의 작용이 끝난 뒤에 다시 勝氣가 왔을 때 復氣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손상된다(復已而勝에 不復則害하니 此傷生也라)”⁴²⁾고 하였다.

넷째 객기와 주기의 승복은 승기만 있고 복기는 없다.

同篇에서 客氣와 主氣사이에는 “勝而無復”⁴³⁾이라고 하였다. 즉 승기는 있지만 복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개빈은 “客氣는 動而變하고 主氣는 靜而常하니 氣強則勝하고 時去則已故로 但以盛衰로 相勝而無復也라”⁴⁴⁾ 하였다. 주기와 객기는 하나의 氣가 60일 87刻半의 기간만을 지배한다.

그리고 天氣로써 動而不息하는 客氣는 위에서 작용하고 地氣로써 靜而守位하는 主氣는 아래에서 작용하는데 이를 客主加臨이라 한다. 둘 사이의 관계는 위에 있는 客氣가 主氣를 勝하면 天氣가 그 政令을 行할 수 있기 때문에 順 또는 從이 되고 主氣가 客氣를 勝하면 天氣가 政令을 行할 수 없기 때문에 逆이 된다. 客氣가 主氣를 勝하여 從이 되든지, 主氣가 客氣를 勝하여 逆이 되든지 그 勝氣는 6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고 또 復氣가 작용할 시간이 촉박함으로 승기만 있고 복기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4.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0.
 37)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985.
 38)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901.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0.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9.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9.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9.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9.
 44)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134.

5. 勝復의 臨床的 活用

勝復은 자연계의 변화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기후가 자율적으로 平衡을 調節하는 機轉으로 古人들이 자연계의 기후를 오랫동안 관찰한 경험의 總結이다. 이것은 天地自然의 이치이며 기후변화의 規律로써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人體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疾病 발생의 기전과 치료원칙을 탐구할 수 있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病情의 發展을 推斷할 수 있다.

한의학은 자연과 인간의 일체관을 중시하며 사람은 자연계의 한 부분으로 자연계의 음양변화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체의 생리는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변화를 하고 병리상태 속에서의 病情도 외계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기도 하고 심해지기도 한다. 『素問臟氣法時論』에서 “邪氣之客于身也 以勝相加하여 至其所生而愈하고 至其所不勝而甚하고 至于所生而持하고 自得其位而起라”⁴⁵⁾ 하였다. 이 뜻은 邪氣가 인체에 침범했을 때 모두 勝氣가 制約하여 병든 臟이 생하는 天干日이나 계절이 되면 병이 낮고, 병든 臟을 克하는 天干日이나 계절이 되면 병이 심해지고, 병든 臟을 생하는 天干日이나 계절이 되면 병이 안정을 유지하고, 병든 臟과 相合하는 天干日이나 계절이 되면 병이 호전된다는 것이다. 이상은 자연상태 하에서의 病情의 변화 規律이지만 임상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시기를 결정하고 정확한 치료방법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승복의 변화도 五行 사이의 相克관계를 기초로 함으로 인체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둘째 질병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모든 淫勝, 反勝, 相勝, 復氣의 치법을 개괄한다면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고 溫者清之하고 清者溫之하고 散者收之하고 抑者散之하고 燥者潤之하고 急者緩之하고 堅者栗之하고 脆者堅之하고 衰者補之

하고 强者瀉之하여 各安其氣”⁴⁶⁾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同篇에서 勝復의 치법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무릇 육기가 승기가 되었을 때 勝氣가 미약한 것은 순리대로 쫓아서 편안하게 하고 승기가 심한 경우에는 制止하여 복종시킨다. 육기가 복기가 되었을 때 복기가 緩和한 것은 미약한 사기를 調和시키고 복기가 심한 경우에는 強盛한 사기를 劫奪하여 瀉해야 하니 모두 勝氣가 미약하나 심하나를 따라서 屈伏되어 퍼지지 못했던 기운을 편안하게 하되 熨수에 구애받지 말고 平和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을 것이니 이것이 치료의 일반적인 規律이다.(夫氣之勝也 微者隨之하고 甚者制之하며 氣之復也 和者平之하고 暴者奪之하니 皆隨勝氣하여 安其屈伏호되 無問其數하고 以平爲期니 此其道也라.)⁴⁷⁾

‘以平爲期’는 勝復의 치료원칙일 뿐만 아니라 한 의학의 중요한 치료개념이다. 이외에 승복에 대한 정확한 관찰은 질병의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素問至真要大論』에는 厥陰之復, 少陰之復 등 三陰三陽의 復氣에 대한 치료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五味를 가지고 설명하여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한다.

6. 結 論

오운과 육기의 승복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연계의 변화는 ‘一陰一陽之謂道’의 법칙에 의해 태과와 불급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태과한 경우 내가 이기는 것을 相乘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相侮하며 불급한 경우 나를 克하는 것이 와서 相乘하고 내가 克하던 것이 와서 나를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89.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9.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9.

- 相侮한다.
2. 勝氣가 작용하면 반드시 復氣가 출현하여 平衡을 유지하는데 이는 자연계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自律的 調節機能이다.
 3. 오운의 승복은 被克者의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勝氣에 보복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육기의 승복은 울체되었던 本氣가 회복하여 나타나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운과 육기는 일체가 되어서 작용함으로 관찰자가 상황에 맞게 이론을 적용시켜야 한다.
 4. 전통적으로 오운이 태과할 때는 有勝無復하고 오운이 불급할 때는 有勝有復한다는 이론이 전해내려 왔으나 태과와 불급을 막론하고 승기가 있으면 복기가 있고 승기가 없으면 복기가 없다(有勝則復하고 無勝則否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5. 主運의 勝復은 승기가 없으면 복기가 없고 승기가 있으면 반드시 복기가 나타나며 승기를 이어서 곧바로 복기가 나타난다.
 6. 『素問至真要大論』에서 六氣의 勝氣를 淫勝, 反勝, 相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전통적으로 淫勝은 有勝無復하고 反勝과 相勝은 有勝有復이라고 하였지만 淫勝에서도 勝氣가 있으면 復氣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7. 六氣의 復氣는 나를 이기는 氣의 克制를 받아 本氣가 울체되었다가 本氣가 회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復氣의 本氣가 복발(復發)하여 왕성하게 작용하여 이와 관련된 기후와 병증이 나타나니 예를 들어 厥陰之復에 風氣復發하여 大行하고 木可制土하며 인체에서는 肝邪實한 증상, 肝邪乘胃, 肝邪乘脾, 肝風主動의 증상이 나타난다.
 8. 『素問六氣玄珠密語』에서는 亥寅午未酉戌의 正化의 해에는 時令 변화의 實을 관장하여 勝而不復하고 巳申子丑卯辰의 對化의 해에는 時令 변화의 虛를 관장하여 勝而有復이라 하였으나 正化, 對化를 막론하고 승기가 있으면 복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승복의 규율은 첫째 승기와 복기가 작용하는 強弱과 日數는 동일하며 둘째 司天之氣가 작용하는 전

반기에는 勝氣가 주로 나타나고 在泉之氣가 작용하는 후반기에는 復氣가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승복에는 고정된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하면 셋째 승복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再勝則 再復하여 고정된 원칙이 없으며 넷째 객기와 주기의 승복은 승기만 있고 복기는 없다는 것이다.

10. 승복은 자연계의 변화작용임으로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인체의 생리, 병리 및 질병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승복에 대한 관찰은 질병의 발전과정을 推斷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Guo AC. Hwangjenaegyong Somun Gyoju(2).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2.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 Hong WS. JungGyoHwangJeNaeGyeongSomun. Seoul. Dongyanguihakyeonguwon.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Zhang JB original work. Lee NG annot.. Ryugyeong. Seoul. Beopinmunhwas. 2006.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4. Liu WS original work. Zhang LP annot.. SomunungironoGyoju. Beijing. Xueyuanchubanshe. 2008.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5. Seong BH trans.. Hyeontowoanyeok Juyeokjeonui(2). Seoul.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2012.
成百曉 譯註. 현토완역周易傳義(下).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2.
6. Wang Q. Research and study of Ungihakseol. Beijing. Zhishichubanshe. 1989.
王琦.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智識出版社. 1989.
7. Xing WL. Research and evaluation of Ungihakseol.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2010.
邢玉瑞. 運氣學說的研究與評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8. Zhang DB Ed.. BaekWhoaTongHaeHwangJeNaeGyeong. Xian. Xian World Book Publishing Company. 2000.
張登本 主編. 白話通解黃帝內經. 西安. 世界圖書出版西安公司. 2000.
9. Zhang ZZ. HwangJeNaeGyeongJipJu. Hangzhou. Zhejiang ancient publishing company. 2002.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